

‘보상 합의 꼼수’에 어민들 그물로 막고 해상시위

뉴스초점 한빛원전 핵폐기물 해상 운송 차질... 쟁점과 전망

“대표성 없는 어촌계장과 밀실합의 인정 못한다” 반발 운반선 사흘째 접안못해... 저장고 포화 가동중단 우려

핵폐기물 이송 책임을 맡은 한국원자력 환경공단이 영광 한빛원전에 임시 보관 중인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일부를 경주의 방사성 폐기물처리장으로 옮기려고 운반선을 영광에 보냈지만 어민들의 반발로 사흘째 접안조차 못하고 있다.

원전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이 한빛원전 첫 가동 이후 30년째 임시건물에 보관한 폐기물이 포화상태에 달해 발전소가 동 중단을 우려할 상황에 놓이자 부랴부랴 운반선을 출항시켰지만 영광 어민들은 “어민 합의 없는 핵폐기물 운반선 진입은 절대 불가”라며 맞서고 있다.

◇해상 시위로 선박 접안 못해=지난

30일 원자력환경공단 등에 따르면 방사성 폐기물 전용 운반선인 청정누리호(2600t)는 한빛원전 앞 10km 해상에 닿을 내리고 정박 중이다.

당초 지난 27일 오후 3시께 영광 앞바다에 도착해 한빛원전 부둣가에 접안, 폐기물 1000드럼(1드럼 1000ℓ 들이)을 실으려고 했지만 입항 소식을 접한 어민들이 해상시위에 나섰다. 어민들은 발전소 앞 1km 해상에 길이 1km 규모의 그물을 쳐놓는 방식으로 청정누리호 입항을 막고 있다.

공단 측은 “어민 대표 격인 어촌계장 4명과 최근 작업보상에 관한 합의를 했는데

도 어민들이 선박 진입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어민들은 “군청에 등록된 선박 778척 중 575척(74%)의 선주가 위임한 수협대책위와의 합의가 장기화되자 대표성도 없는 어촌계장 4명과 밀실에서 합의했다”며 “공단 측이 일방적으로 핵폐기물 선박 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한 반발로 합법적인 작업활동 중”이라고 맞서고 있다.

◇쟁점은 보상 문제=폐기물 선박 접안을 둘러싸고 어민과 공단 측이 맞서고 있는 이유는 ‘보상 문제’다. 어민들은 먼저 ‘밀실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작업 손실 보상 합의 과정에서 2년간 협상을 벌여온 어민단체(수협대책위)가 아닌 어촌계장 4명과 보상금 500만원 수준에서 합의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폐기물 이송을 추진, 운반선인 청정누리호를 불러들였다는 것이다.

◇장기화되면 어떻게 되나=한빛원전 공단과 수협대책위는 폐기물 이송과 관련해 최근 해상 이송에 따른 안전성 검증은 합의했다. 하지만 어민 보상 규모와 합의 기간 등 합의 내용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수협 대책위 측은 ▲선박 1척당 1000만원 보상 ▲5년마다 재협상 ▲사용 후 핵연료, 대형 폐기물 등에 관한 이송 협의는 추후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공단 측은 연 3회 운항을 조건으로 1척당 500만원 수준에서 보상을 끝내자는 입장이다. 특히 월성·한울·고리원전 주변 어민들에게는 작업 손실 보상금 120만에서 300만원 수준으로 지급한 상태여서 어민들의 요구는 들어줄 수 없다는 것이다.

이같이 수협대책위와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공단 측은 지난 23일 돌연 협상 파트너를 바꿨다. 2년여동안 협의해왔던 수협대책위를 제치고 어촌계장 4명으로 변경한 것이다.

◇장기화되면 어떻게 되나=한빛원전 측은 작업 보상 합의가 늦춰져 폐기물 이송

이 장기화될 경우 폐기물 저장공간 포화에 따른 발전소 가동 중단 사태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고 어민들을 압박하고 있다.

한빛원전 관계자는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임시 저장고(2만3300드럼)에는 현재 2만3000여 드럼의 폐기물이 저장돼 98%의 저장률을 보이는 등 꼭 차 있는 상태”라며 “지체차 이동 공간 등에 임시 저장하는 방법이 있지만 조만간 발전소 가동에 위협 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조속한 이송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어민들은 “영광 주민들은 애초부터 발전소 유치를 찬성한 것도, 핵폐기물을 임시 창고에 30년씩이나 쌓아두라고 요구한 것도 아니다”면서 “원전 사업자와 당국은 수십년간 핵폐기물을 방치해놓고서 상황이 급하다는 이유로 생계를 바다에 맡기고 사는 어민 입장을 고려도 없이 밀이 붙이기 식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경호기자 khk@kwangju.co.kr

‘백골단’ 부활하나

5일 민중 총궐기 현장에 경찰, 검거전담부대 투입

경찰이 오는 5일 서울에서 열리는 2차 민중총궐기 현장에 ‘검거전담부대’를 투입하기로 함에 따라 과거 1980년대 군사정권 시절 악명을 떨친 일명 ‘백골단’이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30일 “4·16 세월호 1주기 집회와 5·1 노동절 집회,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 등 대규모 집회·시위에서 차벽이 파손되고 경찰관이 폭행당하는 등 목과할 수 없는 불법 폭력시위가 발생했다”며 집회·시위에서 경찰관에 폭력을 휘두르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시위대에 대해 유색 물감을 뿌린 뒤 현장에서 검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찰은 특히 경찰관 기동대로 이뤄진 ‘검거 전담 부대’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또 오는 5일로 예정된 2차 민중총궐기 전까지 ‘복면작용 폭력시위자 현장검거’를 위한 집중 훈련도 벌인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과거 군사정권 시절 시위대 전담 검거 부대였던 ‘백골단’이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백골단’은 민주화운동이 한창이던 1980년대 집회·시위 현장에서 일반 경찰복과는 다른 활동이 편한 복장에 흰색 헬멧을 쓴 시위대 체포 전담 부대를 말한다. 이들은 시위 현장에서 무차별한 폭력으로 공포의 대상이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메주콩 삶다 불 났어 대피소동

○...곡성에서 메주콩을 삶던 60대 노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아궁이에서 옮겨붙은 불이 바로 옆 주택과 요양시설까지 번져 노인 수십 명이 대피하는 등 소동.

○...30일 곡성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40분께 옥곡면 이모(여·68)씨의 주택 마당에 놓인 아궁이에서 시작된 불이 주변 땃밭에 옮겨붙은 뒤 처마를 마추한 요양원으로 번져 8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진화됐다.

○...이 불로 요양원 입원 환자 23명 등 60여명이 직원의 안내 아래 긴급 대피하는 등 소동이 빚어졌는데,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메주를 쪄려고 콩을 삶던 중 이웃이 배추를 뽑아달라 해서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이런 사태가 일어났을 줄 몰랐다”며 상처를 호소.

◇곡성=김계중기자 kjkim@

“유형업소 여성종업원 업주에 맞아 뇌사”

여수경찰 진정서 접수 조사

유형업소에서 일하던 30대 여성종업원이 업주에게 폭행을 당해 뇌사 상태에 빠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다. 피해 여성과 함께 일했던 또 다른 여성종업원들은 업주가 강씨를 수년간 폭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는 지난 30일 “여수시 학동의 한 유형주점에서 일하던 종업원 강모(여·34)씨가 이 업소의 실제 업주인 박모(여·43)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뇌사상태에 빠졌다는 동료 여성종업원 9명의 제보를 지난 24일 받았다”고 밝혔다.

센터는 “여성종업원들은 지난 19일 밤 11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업소 내 사무실에서 강씨가 업주인 박씨로부터 맞는 소리가 들렸다”며 “업주가 거의 매일 가혹하게 강씨를 폭행하고 폭언을 한 정황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씨 등 업주 2명이 운영하는 이 유형주점은 성매매업소로, 여성 고용시 선불금을 주고 차용증을 작성한 뒤 소위 ‘2차’ 성매매로 선불금을 갚게 하는 방식으로 영입

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 업소에서 일했던 여성종업원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센터는 “업주 박씨 등이 강씨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쓰러진 장소를 바꾸는 등 사건을 은폐·축소하려한 정황도 있다”며 “여성종업원들은 자신들도 그렇게 맞을 수 있다는 두려움과 강씨가 억울하게 피해를 보라는 안 된다는 생각에 제보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에 대한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해당 업소의 성매매 알선에 대한 수사도 철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센터는 이날 증거 자료와 함께 여수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여수경찰은 앞서 지난 23일 강씨 가족의 진정서가 접수돼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한 강씨가 혼자 쓰러졌고, 폭행은 전혀 없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강씨 몸에서 일부 멍자국이 발견됐지만 외관상 폭행 흔적은 찾지 못하고, 뇌사 원인도 토사물에 의한 기도 폐쇄로 추정된다”며 “의혹이 제기된 만큼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경인기자 kki@



제설 대비 친환경소금 확보

울 겨울 예년보다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광주 북구 건설과 직원들이 지난 30일 제설자재보관소에서 도로 제설에 사용할 친환경 소금을 쌓고 있다. 북구는 올 겨울 제설작업에 쓸 친환경 소금 120t과 액상 36t을 확보했다.

제설 대비 친환경소금 확보

울 겨울 예년보다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광주 북구 건설과 직원들이 지난 30일 제설자재보관소에서 도로 제설에 사용할 친환경 소금을 쌓고 있다. 북구는 올 겨울 제설작업에 쓸 친환경 소금 120t과 액상 36t을 확보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인터넷 광고 미끼 자영업자 2800명 울린 사기단

광주경찰청, 54억원 가로챈 7명 검거

유명 포털사이트에 광고를 해주겠다고 속여 자영업자 수천명으로부터 수십억원의 가로챈 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에 24시간 광고를 노출시켜 주겠다고 속여 자영업자 2800여명으로부터 54억71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광고대행사 대표 등 7명을 검거

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 중 서울 모 인터넷 광고대행업체 공동대표 김모(32)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송모(32)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09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5년6개월 동안 서울 강남구 삼성동

에 인터넷 광고대행업체 사무실을 차려놓고 “유명 포털사이트에 3~12개월간 24시간동안 A급 키워드 광고를 노출시켜 주겠다”고 속여 2800여명의 자영업자들에게 5246회에 걸쳐 54억71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생업에 바쁜 자영업자들이 실제 포털 사이트에 광고가 노출되고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계약 초기에만 광고를 하거나

저가의 키워드로 광고를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그 차액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업체로부터 6개월 광고비로 165만 원을 받은 뒤 실제 광고비로는 2만원만 사용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들이 포털 사이트에 올린 1920개 업체의 광고 중 1일 클릭수가 전혀 없는 것은 17만4209건(41%), 1일 1회 클릭은 9만1000여건(21%)에 달해 광고 효과가 전혀 없었다고 조사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펜션 · 박물관 / 미술관 · 식당 · 찻집등 최고 장소!

- ▶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879-4외 1필지
- ▶ 담양댐 하류 바로 옆, 담양리조트 1분거리
- ▶ 대지 2441평, 건물 882평, 임야6726평
- ▶ 과거, 펜션 박물관 식당 찻집 운영(구/송학랜드)
- ▶ 관광특구로 모든 업종 개발가능 / 도 관광 진흥자금 유치 가능
- ▶ 현재 12억 5천만원 대출 있음(연2.1% 월219만원)
- ▶ 1년후 약 18억 정도 재 대출 가능
- ▶ 법인체 인수시 이전비 1억정도 절약
- ▶ 시세/감정가 30억 정도
- ▶ 매매 18억 8천만원(12/31일까지 완불 조건)

공동중개환영 H.010-3605-5000

리모델링 후(약 2억정도) 연 2억이상 순수익 가능!

전원주택마을

한옥마을

구/송학랜드

숙박시설 신축중

오토캠핑장 신축중

담양리조트

금성펜션

오토캠핑장

전원주택신축중